

2019

온갖문제
요구

김명애 팀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연구

2019
「온갓문제연구」
공동연구

어미와 만유연구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는 공금중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시민연구자에게 연구비 지원(최대 250만원)을, 연구가 낳은 시민에게는 열린 워크숍 '온갓연구실현실'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를 진행하며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시민 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분은 “연구란 나와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상관있을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과 과정이란 장벽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작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자와 함께 작게 시도하며 연구의 의미를 '제도권 안의 학습'에서 '자유로운 학습'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과정에 소외와 배제를 제거하여 연구가 대담하기보다 즐거운 여정이 되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시민연구자 분들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처럼 멀리 혹은 가까이서 응원을 더해주시길 기대하며, 그날까지 희망제작소는 〈온갓문제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하겠습니다.



온갓문제연구 1

김명애

김명애 팀

명애, 성희, 란 씨는
유쾌한 에너지를 뽐어냅니다.
원래 명애 씨 혼자
연구를 시작했다가
두 명의 연구자가 합류해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연구자

김명애
백성희
정란

백성희

정란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연구』 연구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사업인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공한
김에 연구〉에 선정된 위 연구진이
수행했습니다.

공공한 김에
연구





목차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정지강
기획 기은환, 손혜진
편집 방연주
디자인 조현상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T. 02-3210-0909
F. 02-3210-0126
E. hope@makehope.org

www.makehope.org

facebook
@hopeinstitute

twitter
@hope_institute

0 2	I. 서론
0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0 5	II. 선행연구 검토
0 5	1.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념
0 7	2.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흐름
1 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0	1. 연구설계
1 1	2. 연구대상
1 2	3. 자료수집
1 3	4. 자료분석
1 5	IV. 연구결과
1 5	1.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7	2. 대상자의 탈북과정
1 8	3. 한국사회 입국 이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과정
1 9	4. 입국 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및 삶의 변화
2 0	5.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2 6	V. 결론 및 제언
2 8	참고문헌

모 - 든
시 민 이
연 구 자
입 니 다



목차

발행처 희망제작소 03978 서울시 마포구
발행일 2020년 3월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발행인 정지강 T. 02-3210-0909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업문의
02-3210-0909

후원문의
02-6395-1415

시민의 희망을 연결하는
Think & Do Tank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수천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을 맞이하면서 하나가 둘이 되고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점차 가치

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없는 38선 넘어 북측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뿌리가 같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는 다르게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이탈자들은 한국사회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하나원에서의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한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영구임대주택 및 교육비 등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고 기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주게 된다. 특별히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피를 나눈 한민족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목숨을 걸고 한국땅을 밟기만 하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풍요로움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북한 이탈자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은 듯하다. 지난 20년간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방식, 사고방식, 문화에 대한 적응 및 다양한 환경에 대한 가치관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 이러한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북한 이탈주민을 이웃에서 늘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대하니 남과 북의 현실적 문화 차이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적 거부감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함께 살아가는 상황들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는 그들과 마주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와 태도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한국사회에서 어렵게 적응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 연구자는 경험을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자 학생들이 언어적인 소통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대학 수업을 이해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보면서 낯선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더욱 빠른 시기인 청소년 때부터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적응요인을 강화한다면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한 명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상상과 탈북 이후 접하게 되는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될 때마다 한국사회에 대해 낯설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이하원, 채경희, 2017).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의 일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 또래 한국 학생들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북한에서 왔다고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들로 인해 자존감 저하 등을 겪으며 학교생활에서 작고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부에서 관할하는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훈련을 거친 후 사회에 나오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구성 중 10대는 3% 비율이나 청소년법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 미만인 북한이탈청소년은 전체 비율 중 10%로 추정되며, 여기에 포함된 북한이탈청소년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시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된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2019).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Hoersting과 Jenkins(2011)는 이동성(mobility)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입국 전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만 8세부터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학교 경험률은 48.8%로 최종학력은 소학교 72.6%, 중학교 초급 19.8%, 중학교 고급 6.0% 순이었고, 제3국 체류 시 재학경험은 9.2%이었다(조현섭, 채경희, 2019). 이렇듯 대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이탈 과정과 체류 기간 동안 성장을 위한 적절한 영양

II.

선행연구
검토

공급과 교육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많은 지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지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이 남한에서 일상의 문제를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갖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됨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미래 남북통일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의존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탈북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능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념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앞서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과거와 현재

를 뛰어넘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특히 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육, 환경, 보건, 노동, 문화 등의 사회적 정책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참여 및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정책이 강화된 것은 산업화 이후로 그리 길지 않은 역사가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 자녀수의 감소와 핵가족화, 교육기간 및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청소년기는 인생의 발달단계 중 주요한 시기로 점차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13~19세의 연령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해당하는 발달과업은 독립성 증가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 세대 간의 충돌 대처이다. 청소년기 위험요인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가족관계 대처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위협을 주는 태도의 남용, 부정하는 태도,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채경희, 2017).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인기를

은 주로 성인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지지환경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탈북은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앞서 탈북한 다음, 자녀를 초대하는 ‘연쇄적 이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separation) 또는 ‘재결합(reunification)’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방비 상태로 한국에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의 일반학교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여러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 위치를 경험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신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정서적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손상희, 2013).

이처럼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들은 극심한 불안, 심리적인 고통,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저하, 다양한 좌절경험, 적대감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관계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은 취학 및 편입 포기에, 취업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후 진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같은 남과

로 인해 는 채울

근 방식 정착을

고 자란

운 인간

한국의

에 단독

다. 북한

유하고

국사회

에서 더

),

를 살펴

사회에

하는데

육구를

해 무엇

특성과

한국으로
탈북 청소년
가족
해체 상실
대부분이다.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의 교육을 받아오다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면서 또 다른 적응 시기를 보내게 된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라는 세 번째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역할에 많은 혼돈을 겪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지지체계가 되는 가족은 해체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의 상실과 더불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지적능력의 부재마저 경험하게 된다. 하나원에 머물면서 한국사회 정착 교육 이후에 일반학교에 배치되지만 학업을 따라 가지 못하거나 교사나 친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서 중도탈락률이 보통의 중·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높다(조현섭, 채경희, 2019).

청소년 시기는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신체상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은 외모와 말투가 확연히 다름으로 드러나지 않은 낙인을 경험한다.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 등을 거치면서 또래보다 연령이 많은 경우도 매우 흔한 일이다.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하게 인식됨에 따른 내적 외적 불편함도 큰 편이다. 많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겉으로는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가 싶으면서도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남한 사람들에 의해 드러난 낙인과 스스로 갖고 있는 숨겨진 낙인으로 낮은 자존감, 수치심을 겪게 되는 것이다(오현아, 김지혜, 2019).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①의 제2조와 제3조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의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을 일컬으며, 부모가 북한 출신으로 중국 및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북한이탈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국하는 청소년 가운데 부모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출생한 자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조현섭, 채경희, 2019).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탈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며 탈북자 정부지원정책의 대부분

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은 주로 성인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지지환경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탈북은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앞서 탈북한 다음, 자녀를 초대하는 ‘연쇄적 이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separation) 또는 ‘재결합(reunification)’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방비 상태로 한국에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의 일반학교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여러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 위치를 경험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신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정서적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손상희, 2013).

이처럼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들은 극심한 불안, 심리적인 고통,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저하, 다양한 좌절경험, 적대감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관계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은 취학 및 편입 포기에, 취업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후 진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같은 남과 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여 하나원에서 12주간 받는 단기간 사회적응훈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문화적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탈청소년에 위한 사회적응 방식은 한국 청소년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한계성이 있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성과를 나타내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태어나고 자란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지지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나, 실제 이들은 한국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지지관계를 갖게 되며 특히 한국에 단독으로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의 경우 매우 열악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된다. 북한이탈청소년 서로 간에는 잘 어울리고 정서적 지지와 공통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한국 친구와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관계망이 열악하며 한국에 거주한지 1~2년 후에 적응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흐름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에 적응 및 부적응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탐색적인 연구가 다수이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엇보다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심리적 특성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의 교육을 받아오다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면서 또 다른 적응 시기를 보내게 된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라는 세 번째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역할에 많은 혼돈을 겪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지지체계가 되는 가족은 해체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의 상실과 더불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지적능력의 부재마저 경험하게 된다. 하나원에 머물면서 한국사회 정착 교육 이후에 일반학교에 배치되지만 학업을 따라 가지 못하거나 교사나 친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서 중도탈락률이 보통의 중·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높다(조현섭, 채경희, 2019).

청소년 시기는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신체상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은 외모와 말투가 확연히 다름으로 드러나지 않은 낙인을 경험한다.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 등을 거치면서 또래보다 역량이 많은 경우도 매우 흔한 일이다.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하게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지지체계가 되는 가족은
해체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2.

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사회 적응 속도와 관련한 그들 가족 내부에서도 세대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남북한 사람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언어적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친구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부적응 속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법과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이 있었다(좌동훈, 2014).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생각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부러 밝히려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도 별 거리낌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9).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대답이 35% 이상으로 나타나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학교나 사회복지지원, 직장 등을 통해서 사회와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숫자적으로 소수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좌동훈, 20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북한이탈청소년을 한국사회의 소수자로 수용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개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의미하는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 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크기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 기능적인 측면은 실질적인 대인 관계의 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을 뜻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때에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채경희, 2017).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탈북청소년이 진로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섭, 채경희, 2019).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통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 혹은 진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행동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적 자신감과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한국사회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 학교 교육에서의 부적응, 사회문화적 측면, 지원정책의 문제들로 나누어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았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과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이하원, 채경희, 2017).

또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 강도가 한국의 청소년들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연구 방법 및 절차

III.

01.

연구설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거쳐 이론적 함의에 이르고자 한다.

첫 번째, 질적 연구에서 근거가 있는 생애사 재구성을 위해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북한 이탈청소년의 생애를 서사적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은 각자 다양한 생애 체험을 가지고 북한 이탈과정을 겪었고,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탈북과정에 대한 고찰은 이들의 이야기와 체험을 토대로 연구의 결론 도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족한 사회적 지지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윤숙·윤인진, 2007). 기존연구들에서 수행된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한 심층적 고찰을 시도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02.

연구대상

북한이탈청소년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98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9).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면서 한국사회의 적응은 물론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영향에 관한 궁금증으로 연구 주제를 확립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선행학습의 과정을 안내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상자를 만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 후 1년에 근접한 기간, 즉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남한에 들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입국 후 상당 부분 기간이 지난 경우보다 적응과정을 지켜보기 쉬운 부분이 있었기

표 1.
- 북한이탈청소년 통계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8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체		157	309	519	985
수도권	남성	53	113	156	322
	여성	59	95	187	341
비수도권	남성	24	51	76	151
	여성	21	50	100	171

때문이다. 이러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북한이탈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탈북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녹음과 사진 자료 등의 자료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더 많은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한 것은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북한이탈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연구대상자로 정하고 최소 5년 이상 이들을 지도해 온 대안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경험을 구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거쳐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된 정체성을 형성한 북한이탈주민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희망하는 2명을 연구대상자로 정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대상자는 북한이탈청소년 2명과 북한이탈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 2명, 청소년 시기에 탈북하여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명으로 모두 6명으로 선정하였다.

그룹번호	사례번호	이름	현재 나이	현재 활동	비고
1	1	이철민	17세	고등학생	2018년 남한 도착
	2	김유민	18세	고등학생	2018년 남한 도착
2	3	김평화	67세	교장선생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4	이미숙	55세	교감선생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3	5	엄미영	30세	종합병원 간호사	2007년
	6	강청순	28세	자영업	2009년

표 2. 구술자 약력
구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인명과 지명을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이탈청소년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 학습 및 대학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선행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정기적인 만남을 갖던 중이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그룹은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나원을 통해 만난 연구대상자와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연결된 대상자 등으로 최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해 오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상자가

03.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과의 만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2년 겨울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엄미영 씨(사례번호 5)를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입소자들과 연결되어 간호학과 진학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나원을 통해 만난 엄미영 씨가 간호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청소년기에 선행되어야 할 문화적인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실감하면서 본 연구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연구의 대상자 즉 구술자와 연구자와의 만남을 그룹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인 북한이탈청소년 그룹은 2018년 겨울에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만나온 30여명의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았고 이 중 연구에 대해 설명을 동의한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연구대상자인 교사그룹은 본 연구자에게 간호학과를 지망 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선행학습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면서부터 이루어졌으며 북한

입국 후 1년 ■ ■ ■
■ ■ ■ 가까운 시기 ■ ■ ■
■ ■ ■ ■ ■ ■ ■ 청소년
■ ■ ■ 연구·조사했다.

탈주민
것이다.
의 누락
사용에
을 듣고
어려운
확인하
하면 위

이탈청
로 심층
는 과정
면접은
을 이용
도하는
과 필요
료로는
등에서
와 진행

때문이다. 이러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북한이탈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탈북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녹음과 사진 자료 등의 자료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더 많은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한 것은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북한이탈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연구대상자로 정하고 최소 5년 이상 이들을 지도해 온 대안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경험을 구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거쳐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된 정체성을 형성한 북한이탈주민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희망하는 2명을 연구대상자로 정하여

그룹번호	사례번호	이름	현재 나이	현재 활동	비고
1	1	이철민	17세	고등학생	2018년 남한 도착
	2	김유민	18세	고등학생	2018년 남한 도착
2	3	김평화	67세	교장선생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4	이미숙	55세	교감선생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3	5	엄미영	30세	종합병원 간호사	2007년
	6	강청순	28세	자영업	2009년

표 2.

구술자 약력

구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인명과 지명을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이탈청소년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 학습 및 대학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선행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정기적인 만남을 갖던 중이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그룹은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나원을 통해 만난 연구대상자와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연결된 대상자 등으로 최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해 오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상자가 필요로 할 때 본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던 대상자들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수년에 걸친 만남과 대화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적인 면접을 이용하였다. 면접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녹음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로부터 대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녹음 된 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구술자들의 약력을 소개하면 위 [표 2]와 같다.

0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독립된 회의실이나 편안함을 주는 찻집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재들과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일상적인 질문으로 자료수집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기존 자료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단행본 및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발행한 최신 실태조사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 대상자와 진행

입국 후 1년에 근접한 기간,
즉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남한에 들어 온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연구·조사했다.

IV.

연구 결과

한 심층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과 인터뷰에서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기술한 메모, 카테고리, 문서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선적으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연구 주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연구 주기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3회를 진행하였다. 1차 연구 주기에서는 탈북학생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단독으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는 교장선생님의 염려로 인해 첫 번째 인터뷰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믿고 따르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연구자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1차 연구를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의하고, 2차 연구 주기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 그룹과 교사 그룹,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룹을 각각 인터뷰하여 한국사회에 북한 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각각의 경험을 중심으로 긍정요인을 도출하였다.

3차 연구 주기에서는 도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사회적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하였다. 각각의 연구 주기에서의 논의는 서로 중첩되고 연결되며 나선형으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이 무엇인지와 기존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01.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청소년은 17세 남학생과 18세 여학생으로 현재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북한에서 거주할 때는 여학생은 “시”에 해당하는

백두산 근처 지역에 살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군”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나 김정일이 태어난 고향이라 전기가 잘 들어왔다고 구술하였다. 두 학생 모두 중국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서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유민은 부모가 모두 북한에서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도 없는 상황에서 이웃에 살았던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중학교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난 해 겨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간호대학 진학을 위해 대입 특별전형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늘 불안하고 창백해 보였던 김유민을 검정고시 합격 후 다시 만났을 때 시험 전보다 확연히 밝아진 표정으로 예전과 다르게 자주 웃고 편안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유민은 현재 대안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입국 후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던 경험은 없는 학생이었다.

이철민은 부모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으며 친척 누나의 도움을 받아 친형과

있었다. 현재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엄마를 모시고 오려던 계획은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여져서 건강상의 문제로 무산된 상태였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었던 엄미영은 현재 한국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매우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직접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강청순은 10년 전 북한을 떠나 자신의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에 있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온 상태였다. 강청순의 경우는 경기도 파주의 임대아파트를 거주지로 지원받은 것 외에는 정부 보조금은 스스로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정착자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하나원을 나오던 날로 거절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가장 비싼 시급을 주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한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무역을 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고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 가면 마음껏 돈을 벌겠다는 본인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 탈북 당시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통해 탈북에 성공하였으며, 북한을 나와 중국 신의주 부근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일을 하여 직접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현재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홀서빙을 하면서 주말에는 결혼정보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틈틈이 당구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등 2~3개 이상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현재 경기도 김포에 38평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은 상태이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 명품을 사서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열심히 번 돈으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 정착할 당시 또래들처럼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차를 사고 집을 사겠다는 계획이 우선시 되어 학교는 포기하였으나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탈북과정

성인이 되기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의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탈북하여 자신을 한국으로 오도록 초대한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국경을 넘은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은 경우 등이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탈북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 북한 이탈자들은 탈북 이후 주로 중국에서 머물면서, 제3국인 베트남과 태국 등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

함께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친형의 권유로 중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형과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지 한국으로 탈북을 할지 고민하던 중 친척누나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이철민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 보였으나 일반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나 한국의 문화, 언어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김유민은 처음 한국사회에 왔을 때는 북한과 남한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주저하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특히 지지할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긴 여정을 견디며 한국으로 홀로 와야 했기에 불안,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수업을 받다가 자주 쓰러지고 지속적인 두통을 자주 호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점차 활발한 또래의 한국 학생들과 다룰 것 없이 밝게 웃으며 매우 쾌활한 모습으로 심층면접에 임해주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두 학생을 만나면서 특이했던 부분은 두 사람이 묘사하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여러 부분에서 상이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북한에서의 생활환경에 대해 구술할 때는 서로 간에 경험을 다르게 이야기하며 서로 자기가 살던 곳의 환경이 더 좋고 우수했다고 경쟁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시”에서 온 학생과 “군”에서 온 학생 간에 집 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차이가 있었고,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에서 김유민은 자신이 살던 집은 아궁이에 불을 때어서 난방을 해결하였으나 이철민은 방 안에서 연기가 나는 난로를 피웠을 거라고 추측하며 자신의 북한 생활환경이 더욱 우수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였을 때 이곳에서의 생활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발전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두 학생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입을 모아 동의 하였다.

청소년 때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엄미영은 자신보다 먼저 탈북한 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큰언니가 8년 전에 먼저 탈북을 시도하여 남한에서 자리를 잡았고 탈북을 결심하기 몇 해 전부터 중국산 휴대폰으로 한국의 언니와 전화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깊은 밤 산 속에 올라가면 중국전화기로는 한국의 가족과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북 간에 이렇듯 서로 간에 왕래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엄미영은 탈북 당시부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북한에 혼자 남아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03.

오는 기회를 기다리게 된다. 좋은 기회를 잡아 제3국으로 이동 한 경우에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탈북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자인 것이 발각되면 공안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복송 당하게 된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삶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3~7년이 걸린다.

한국사회 입국 이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과정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약 1~2개월간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전화를 거는 방법부터 컴퓨터 사용법 및 한국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희망자들에게 미용이나 헤어, 바리스타 등 원하는 기술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자가 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초대하여 입소자와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하나원을 퇴소하게 되면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거주지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배정받게 된다. 주소가 정해지면 비로소 한국사회로 나오게 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은 ‘학업’문제이다. 북한에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중국 등 3국에서 보내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학교 수업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마치고 넘어온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차이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말을 구사하면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친구들로 인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서 중도탈락률이 보통의 중·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직항을 선택할 수 없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게는 3년 이상이 되어 감에 따라 또래보다 3~4세 이상 연령이 많은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적응하기보다는 검정고시 등의 방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04.

입국 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및 삶의 변화

1) 한국 정착 이후 바라 본 한국사회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폐쇄되어있고, 그 곳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각 지역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는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와 삶에 대해 미리 맛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을 미리 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탈북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불안과 염려, 근심 등의 감정을 겪게 된다. 또한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와 사람들을 거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

의사결정
어려움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
과정

0-4.

입국 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및 삶의 변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폐쇄되어있고, 그 곳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각 지역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는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와 삶에 대해 미리 맛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을 미리 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탈북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불안과 염려, 근심 등의 감정을 겪게 된다. 또한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와 사람들을 거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1년에서 3년 이상 짧다면 짧은 시기에 세 나라 혹은 그 이상의 나라에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들을 겪어오면서 한국사회에 도착해서도 또 다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의 어려움 건디고 한국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를 해내면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무엇보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편리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좋았다고 했다. 다양한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점도 한국에서 느끼는 새로운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북한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은 신기하긴 해도 먹는 것이 어려워서 아직도 못 먹어본 것이 많다고 하면서도 매우 행복한 얼굴로 선호하는 음식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마지를 비롯하여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머리를 기르거나 염색을 하는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에 매우 감사해 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모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1)
한국 정착 이후
바라 본
한국사회2)
한국에서
새로운
삶과 문화를
경험

오는 기회를 기다리게 된다. 좋은 기회를 잡아 제3국으로 이동 한 경우에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탈북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자인 것이 발각되면 공안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복송 당하게 된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삶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3~7년이 걸린다.

0-3.

한국사회 입국 이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과정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약 1~2개월간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전화를 거는 방법부터 컴퓨터 사용법 및 한국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회맛자들에게 미용

성인이 되기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의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1)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교육과 사회연결망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는 하나원이다. 하나원에 들어 갈 때는 한국이라는 곳과 한국사회 문화에 대해 백지상태인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줄 때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속도와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해주는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와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원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합당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에 따라 흥미를 보이는 영역에 대해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하나원을 나온 이후 한국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여러겹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부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사회에서 처음 만나고 사귀게 되는 한국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사회적응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북한의 특수한 문화에서 자라온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이 준비 된다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적인 지원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연결망을 확립해주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온 몸으로 한국사회 문화를 체득하면서 자조능력을 키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하나원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 멋있어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에 대해 물어보니깐 어려운 걸 니가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못꾸고 있다가 교수님 만나고 다시 간호학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진작 이렇게 간호사가 되는 길이 있고 나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이 참 힘이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금과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런 지원이 계속 되면 좋은데 4~5년이 되면 끊긴다고 해요. 북한 이탈 청소년은 80만원을 지원받는데, 성인이 되면 5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할지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처음 갔던 일반

참여자: 이철민



참여자: 김유진



참여자: 김평화



참여자: 이미숙



학교의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고 저랑 친하게 지내주었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런데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옮겼던 대안학교에 서는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 때 선생님들이 저를 지켜준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으로 전학을 보낸 거예요. 지금 있는 학교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너무 잘해주고 좋아요.

- 국가 지원도 마음에 큰 힘이 되었지만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처음에는 민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북한말을 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놀릴까 봐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온 걸 알고도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놀자고 해주는 한국친구를 만나서 고맙고 반가웠어요. 그것이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도 모두 너무 좋으시구요. 학교에 상담해주러 오시는 선생님한테도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여러 번 보니까 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상담 받으면서 점차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니까 겁나던 것들로 이제는 별것 아니게 느껴져요.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많이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탈북학생들은 한국사회에 대해 전혀 몰라요. 인사하는 방법도 메모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과는 전혀 달라요. 필기하는 것도 습관이 안 되어 있고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시키면 한 번도 안 해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고 다시 반복해야 돼요. 한국 중·고등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하루라도 청강하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게 하고 싶어요. 아~ 이런 게 대학이구나 하고 느끼고 놀라게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완전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보게 되는 거라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한국과 북한의 문화와 생활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교수님께 연락드리게 된 거구요... 대학입시 관련 박람회 가 있을 때 북한에서 온 아이들만 가서 둘러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되돌아오고 말더라고요.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교수님 학교 대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한 명씩 맡아서 같이 입시 박람회를 돌아주고 대신 질문하고 정보랑 자료로 챙겨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참여자: 강청순



- 처음 일하러 간 곳의 식당 사장님께서 정말 딸처럼 잘해주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를 불러내서 북한에서 왔다고 따로 인사도 시켜주시고, 반찬이랑 가끔 어려울 때 사정도 봐 주시구요. 지금은 저의 롤 모델이에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에 맞들려면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영영 혼자 못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에 목숨 걸고 왔는데 이 까짓 일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2) 다양한 정보의 공급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하나원과 학교에서 주는 정보 이외에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바뀌고 또 바뀌고 현재의 시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고립된 문화에 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를 주는 것 이외에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스마트 폰의 발달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 예견되는 이때에 IT, 디지털 산업, 예술,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봉사활동 등 우리는 늘 보고 자라온 문화적 환경이지만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정보들을 잘 선별하고 탐색하여 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혼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 환경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의사결정이 미숙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급해주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자칫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려는 인지·정서·행동 과정으로 정의된다(D'Zurilla, 1982).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여 더 이상 정보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북한이탈청소년에게는 생소하고 처음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인지, 정서 환경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처음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도움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들도 당연히 알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북한이탈

참여자: 김유진



청소년들은 전달받은 정보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답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인지, 정서, 행동에 맞는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또한 불필요하고 위험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이끈다면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본다.

- 서울에 있는 대학 외에는 들어본 곳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다보니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밖에 몰라요. 무슨 과를 가면 좋을지도 전혀 몰라요. 대학관련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보니깐 먼저 정착한 선배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위에 별로 없어요. 지금도 중문과에 간 선배님이 계셔서 거기만 알지 다른 과는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도하고 대학에 있는 과들을 읽어 봐도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선배들과 연결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나보고 싶어요.

-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한국말도 너무 빠르게 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도 티도 안내고 다시 질문을 하거나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해 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반복해서 말해보라고 꼭 시켜보죠. 그러면 방금 들은 얘기도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간 연락을 모두 끊고 지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자자 얻게 되고 듣게 되는 정보들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냈으면 훨씬 수월하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금은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북에서 온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당과 수령 동지 말고는 그렇게 말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막 넘은 후배들한테는 도움받으면 도움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꼭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사도 먼저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거 북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들을 저도 오래 살다보니 알게 된 거라서...

참여자: 김평화



참여자: 임미영



3) 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한국사회의 인식 전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탈북과정 겪으면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어디에도 마음 놓고 소속될 수 없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이탈 과정과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도 연속적이지 못한 상황과 지체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 사회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맞물리게 되면 “난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의문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북한이탈청소년에게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탈북한 경우에도 자신이 상상했던 삶과 한국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길을 잃고 자아존중감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가치 있다고 믿는 유능함과 중요함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평가로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격을 건전하게 발달시켜주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도, 행복감, 자신감이 높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이고 창의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삶을 부정인 자세로 대하게 되며 열등의식과 소외감 및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이하원, 채경희, 2017).

북한이탈청소년은 한국사회와 마주하면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깊은 절망감과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아존중감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자들에게만 한국 사회 적응과 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북한사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해온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배경이 다를 뿐 나와 같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볼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먼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시선을 주어야 한다. 나와 다른 그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을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하도록 이끌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 김유진



- 북한에서 처음 남한으로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우울과 불안감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때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을 연결해 주었어요. 그 분과 만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것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장애인 봉사 활동에 연결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강형순



-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 비웃고 얹잡아 볼까봐. 그러다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니가 북한에서 온 것이 왜 쟁쟁한 일이니.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돼.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도 아니잖아.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진 건데 자식들이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일뿐이고 우리는 형제자매인데 북한에서 온 것이 뭐 어쩌냐. 당당해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정말 당당해지기로 결심했죠. 내가 잘 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한국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한테 피해 준적도 없는데 내가 뭐가 부끄러워서 숨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IV.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연구대상자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긍정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긍정요인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사회연결망, 다양한 정보의 공급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한국사회의 인식 전환이었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다양한 방면으로의 사회연결망을 형성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고 하나원에서 처음 한국사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지, 정서, 문화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줄 것인지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의 속도와 그 결과물은 달라지게 된다.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

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이 하나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향후 한국사회에 적응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한국사회에 체계적인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인 적응과 일상생활의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지적 사회관계망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거미줄식 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살던 고향과 집, 가족을 떠나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에 발을 내딛게 되면 처음부터 강인하게 버티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여러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으면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들만을 위한 앱 또는 플랫폼의 개발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정보습득 능력에 바탕이 되어 있다면 북한이탈청소년들 앞에 사회적 문제가 놓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고 준비

깊고 이
한다는
탈자에
를 하나
자 하는

장 중인
두 다른
난 정체
가족과
록 특화
이 누구
습으로
요하다.
보았을
제해결
며 북한
활하게
우선시

한국사회 적응
긍정요인
교육 사회연결망,
정보
문제해결 정체성
자아존중감 인식
전환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긍정요인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사회연결망, 다양한 정보의 공급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한국사회의 인식 전환이었다.

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이 하나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향후 한국사회에 적응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한국사회에 체계적인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 수록 심리·사회적인 적응과 일상생활의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지적 사회관계망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거미줄식 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살던 고향과 집, 가족을 떠나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에 발을 내딛게 되면 처음부터 강인하게 버티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여러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는 정보 외에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보력을 갖추었을 때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때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기획해야 한다. 정부와 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도움 이외에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 된 다양한 분야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한손에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이다. 기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선택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들만을 위한 앱 또는 플랫폼의 개발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정보습득 능력에 바탕이 되어 있다면 북한이탈청소년들 앞에 사회적 문제가 놓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뜬구름 잡듯이 두리몽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사회가 먼저 북한이탈자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들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 뿌리는 같으나 환경과 문화가 모두 다른 한국이란 사회로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자기 자신과 타인,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특화되어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은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아직은 소수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들의 변화가능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진심어린 지원과 응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인식의 전환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먼저 손 내밀게 되기를 바라본다.



참고 문헌

남북하나재단(2019),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2019.02.

이하원, 채경희(2017),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 2017.9, 395-402.

오현아, 김지혜(2019),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식성 양상에 대한 질적 탐색 - 학습 생애사적 접근의 내러티브 인터뷰와 질적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학』, 2019.10, 165-202.

이희영(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1), 2010.2, 207-241, 2010.2, 207-241.

손상희(2013) "북한이탈 청소년의 소비생활 정착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소비자학회』, 327-362

조현섭, 채경희(2019), 탈북 청소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 2019.6, 501-513).

좌동훈(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호, 97-126.

박윤숙, 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 124-155.

채경희(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 2017.11, 683-689.

박민철, 도지인(2019), FGI 방법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연구: 그 필요성과 방법 및 의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9, 5-35.

J. W. Kim, J. S. Kim, K. S. Kang, B. R. Yeon,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white paper,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Park, Yun Soo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Forum Youth Cult, Vol. 19, 2008.

R. C. Hoerstring, S. R. Jenkins, No place to call home: Cultural homelessness, self-esteem and cross-cultural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5 No.1, 17-30, 2011.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0.11.005>

T. J. D'Zurilla, A. M. Nezu, Social problem solving,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201-274, 1982. <https://doi.org/10.1016/B978-0-12-010601-1.50010-3>

〈2019 온갓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연구보고서는 희망제작소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연구보고서는 시민연구 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 입장과 무관합니다.

◆ **김명애 팀 김명애** 북한에 간호대학이 세워지는 날을 꿈꾸며 북한이탈청소년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간호사 •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청사진을 꿈꾸며 한국 땅에 내딛는**

그들의 첫 발걸음에 무언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포근해

져서 넓은 마음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두 팔 가득 안아주게 되길 바랍니다. ◆ **김명애 팀**



정란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웃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간호사 • **‘탈북민의**

효과적인 정착에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탈북민들을 보며 외국어도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해야 더 늘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이 요소가 늘어나 문화정착 기반이 되어 조금 더 사회에 녹아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애 팀 백성희**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해

하고 가슴깊이 안아주는 간호사 • **북한이탈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

부적응의 이유를 없애는 것



보다 긍정적인 사례를 찾아서 정착을 돕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적응의 긍정적 요인 연구가 이것의 시작이 되겠다 싶었습니다.